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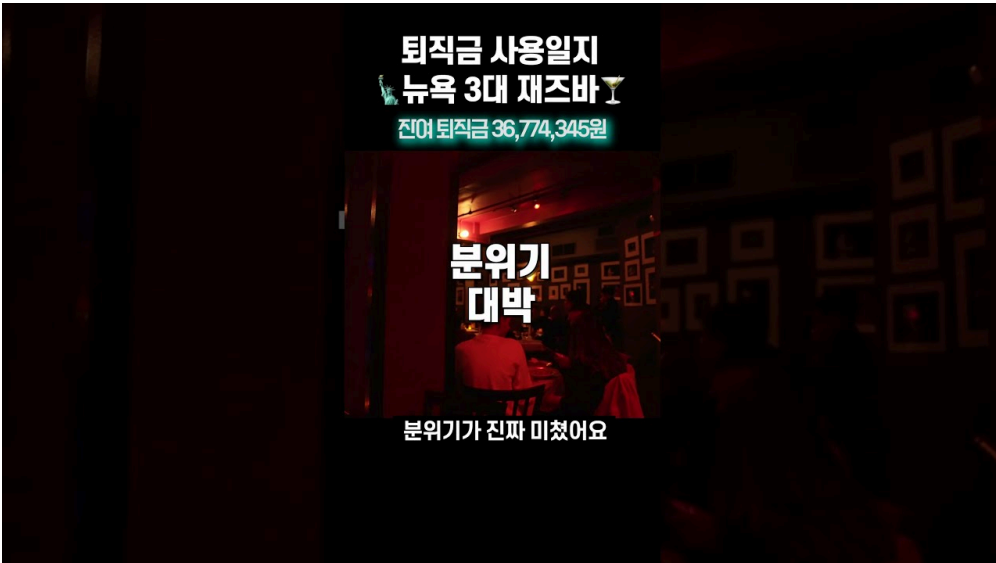
# 노래방을 넘어, 일과 모임을 연결하는 공간

가음동에서 회의와 파티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 저녁 시간대에 팀 브리핑을 마치고, 바로 건배와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회사, 발표 모임을 끝내고 케이크 커팅을 하는 스터디 그룹, 거래처와의 캐주얼 미팅 후 친목을 이어가려는 소상공인 네트워킹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회의실 겸용 파티룸을 갖춘 가라오케는 이 흐름에 맞춘 선택지다. 방음과 음향, 화면과 조명, 테이블 배치 변경 같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이동 시간을 줄이고 집중도와 몰입감을 높인다.

가라오케 특성상 보컬 중심의 음향과 마이크, 대형 화면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여기에 미팅용 테이블, 화이트보드 또는 전자칠판, HDMI 연결, 와이파이 안정성, 콘센트 밀도, 거치형 삼각대 같은 회의 장비가 더해지면 응용 범위가 넓어진다. 따로 호텔 세미나실을 대관하고 다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체력 모두 아낄 수 있다. 다만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회의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층고, 환기, 의자 형태, 조명 색온도만 달라도 몰입감이 갈린다. [용호동 가라오케](#) 이 글에서는 가음동을 중심에 놓고, 창원 주요 상권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실제로 고를 때 봐야 할 기준을 짚는다.

## 가음동의 위치감과 동선, 왜 편리하게 느껴지나

가음동은 창원 성산구에서 상남동과 용호동 사이에 놓인 주거 혼합 상권이다. 상남 상업지구처럼 화려한 네온스펙이나 유동인구의 폭발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이 점이 회의 겸용 파티룸에는 장점이 된다. 심야 소음 민원이 덜하고, 주차 접근성이 낮고,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짧다. 회사 사무실이 분산된 창원 구조상, 성산구와 의창구 경계에서도 차량으로 15분 내 접근이 가능해, 1차 미팅, 2차 친목을 한 공간에서 소화하기 좋다.



주차는 보통 지하 공용주차장 혹은 건물 내부 주차장이 혼재한다. 회의 시작 시간이 18시 30분 전후라면, 출퇴근 교차 시간대와 맞물려 진입로가 잠깐 붐빈다. 이때는 정문 쪽이 아닌 후문 램프를 타는 편이 효율적이다. 도보 접근의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5분 내 접근 가능한 매장이 많아 대중교통 조합도 수월하다. 외부 식사 후 이동한다면, 가음정류장 근처 도로는 회차가 여유로운 편이라 승하차 동선 관리가 편하다.

## 어떤 매장을 고를까, 공간 스펙을 문자와 사진으로만 판단하지 말 것

현장에서 확인하면 온라인 설명과 다른 지점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12인 수용이라고 표기되어도 벽면 일자 소파 구조라 면대면 회의가 어렵다거나, 테이블이 높아 노트북 타이핑 시 손목 각도가 불편한 곳이 있다. 반대로 좌석 수는 적게 적혔어도 동선이 깔끔하고 의자 보강이 잘 되어 실사용에 더 쾌적한 경우도 있다.

회의실 겸용 파티룸을 따질 때, 우선 체크할 공간 스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룸 크기와 형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프로젝션 왜곡이 덜하고, 스피커 배치가 균형을 잡아 소리가 중앙에 모인다. 둘째, 조명 조절. 색온도 4000K 전후의 중성광이 가능해야 메모를 읽을 때 눈이 편하다. RGB 무드조명만 강조한 곳은 회의 내내 피로도가 쌓인다. 셋째, 환기와 냄새 잔류. 냄새는 집중력에 큰 영향을 준다. 흡연실과의 거리, 공조기 토출 방향, 문턱 높낮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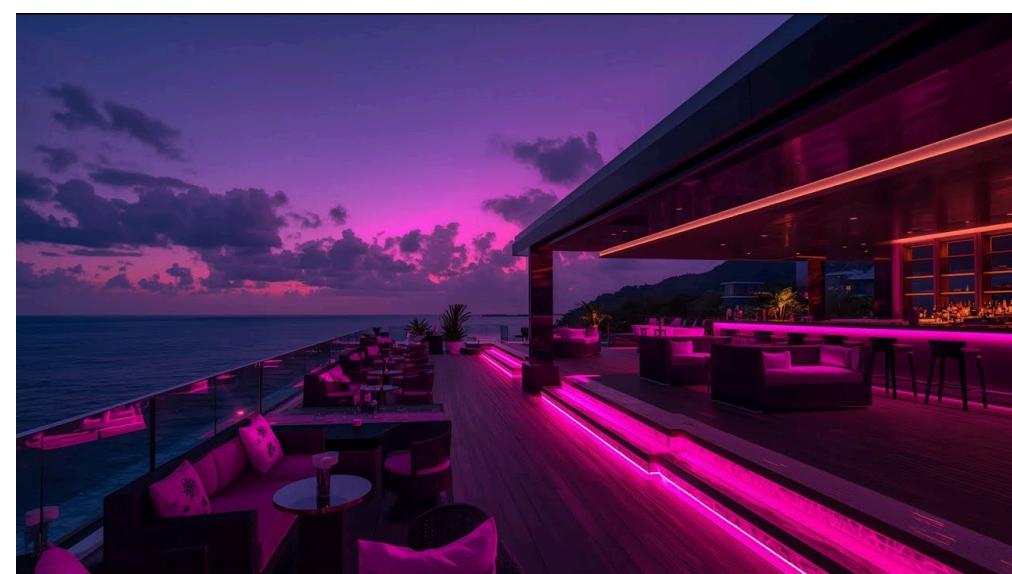
지 봐야 한다. 넷째, 바닥과 테이블의 케이블 정리 상태. 배선 덮개가 있으면 발에 걸려 옆지르거나 장비를 떨어뜨릴 일이 줄어든다.

작년 [중앙동 가라오케](#) 10월 어느 중소기업 팀이 16명 워크숍을 요청해 현장을 조율한 적이 있다. 기본 룸 하나로는 비좁아 보였지만, 인접 룸과 가변 벽을 열어 L자 형태로 구성하니 발표자 시야가 끝좌석까지 닿았다. 대형 TV 2대에 HDMI 분배기를 물려 발표 화면을 동시에 표기했고, 중앙 테이블을 70도 회전 배치해 발표 동선이 생겼다. 이 구성만으로도 집중도와 이동 효율이 확실히 달라졌다. 매장 직원과 미리 통화해 가변 벽 개방 여부, TV 입력 포트 종류, 천정 프로젝터 유무를 확인한 덕에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 음향과 마이크, 회의에서는 어떤 세팅이 유리한가

가라오케는 원래 보컬이 전면에 나오도록 설계된다. 발표와 토론이 섞인 모임에서는 반대로 말소리가 또렷하되, 뒤쪽 반사음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가능한 옵션은 여러 가지다. 다이내믹 마이크 2대를 준비해 한 대는 사회자 전용, 나머지 한 대는 회의 발언용으로 돌리는 방식이 기본이다. 탬버린과 같은 타악기는 발표 중에는 비치만 해 두고, 마이크 감도는 60에서 70 사이로 두고, 에코는 0에 가깝게 줄인다. 배경 BGM은 10에서 15 레벨 사이가 말소리를 덮지 않는다.

무선 마이크의 주파수가 간섭을 일으키면 잡음이 생긴다. 특히 옆방과 벽을 공유하면 같은 채널을 잡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신기 뒤쪽의 채널 다이얼을 한 칸만 바꿔도 심중팔구 해결된다. 스피커 위치가 정면 벽면 상단에만 있는 곳은 하울링이 덜하지만, 코너 스피커가 추가된 룸은 마이크를 돌릴 때 피드백이 생기기 쉬워 마이크 캡을 손으로 가리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발표 영상이 있다면 HDMI로 영상만 넣고 소리는 룸 음향을 통해 출력하되 마스터 볼륨을 40 이하로 고정하는 편이 문장 끝자락의 시끄러움을 줄인다.



## 화면, 네트워크, 전원, 작지만 결정적인 요소

요즘 회의에는 화면과 연결 안정성이 절반이다. 화면은 75인치 이상 TV나 100인치 전후의 프로젝터가 일반적이다. 프레젠테이션만 한다면 65인치도 충분하지만, 뒤쪽 5열까지 앉는 모임이라면 75인치를 권한다. 글자 크기 기준으로 24포인트가 뒤에서 읽히는지 새창으로 글자를 띄워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HDMI 케이블 길이는 5m를 넘기면 신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룸에서 중앙 테이블까지 케이블 덮개 라인을 따라 3m와 5m 두 가지를 준비하면 변수가 줄어든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2.4GHz와 5GHz를 모두 지원하는 곳이 유리하다. 회의 중 설문이나 클라우드 문서 공동 편집을 진행하려면 핑이 20ms 내외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가음동 몇몇 매장은 방마다 공유기를 두지 않고 복도에 AP를 공용 설치하는데, 이 경우 출입문을 닫으면 신호가 줄어든다. 이런 환경에서는 발표자가 LTE 테더링을 백업으로 켜 두면 예기치 못한 끊김을 막을 수 있다.

전원은 테이블 면적 1제곱미터당 1구가 편하다. 10인 회의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하려면 멀티탭 2개는 기본이다. 충전 케이블을 매장에서 제공해도 커넥터 규격이 뒤섞이니, USB C to C, USB C to Lightning, USB A to Micro 3종 세트를 팀에서 별도로 챙기면 실수 줄이기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 예약 전략, 비용 구조, 성수기 타임 슬라이스 설정

가음동 가라오케의 회의실 겸용 파티룸은 일반 룸 대비 최소 20에서 40 percent 프리미엄이 붙는다. 평일 18시 이전에는 시간당 2만에서 3만 원 수준, 18시 이후에는 인당 기본 이용료를 받거나 시간당 4만에서 6만 원대로 된다. 금요일 20시 이후는 완전 성수기로,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 술과 음식을 포함한 패키지를 쓰면 룸비가 일부 감면되기도 한다.

예약은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 전에 이뤄진다. 다만, 월말과 분기말에는 팀 회의 수요가 몰리므로 10일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사전답사는 10에서 15분만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예약 전 통화를 통해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 항목과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을 구분해두면 좋다.

예약 직전에 점검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항목을 간단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본다.

- 참석 인원과 좌석 형태, 강의식인지 U자형인지
- 화면 출력 방식, HDMI 규격과 어댑터 유무, 노트북 OS
- 마이크 수량과 예비 배터리, 에코와 BGM 초기값
- 식음료 반입 및 코르크 차지, 룸 청소와 쓰레기 처리 규정
- 정산 방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식음료, 반입의 경계와 현장 센스

회의를 먼저 치르고 파티로 넘어가려면 냄새가 강한 메뉴는 뒤로 미루는 편이 좋다. 특히 마늘 베이스 소스, 튀김류는 책상 표면에 잔향이 남는다. 룸 안에서 피자 박스와 치킨을 동시에 열면 환기 한 번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먼저 차가운 핑거푸드를 세팅하고, 발표가 끝나는 시점에 뜨거운 메인 메뉴가 들어오도록 점장과 시간을 맞춰두면 집중력과 만족도 사이 균형이 맞는다. 반입이 허용되는 매장이자 외부 주류는 코르크 차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병당 1만에서 3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 와인 잔 제공 여부를 따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

물과 얼음은 사소해 보이지만, 회의 후 노래로 넘어갈 때 분위기를 매끄럽게 연결해준다. 얼음통 두 개, 집게 두 개를 미리 요청하면 줄 서서 음료를 따르는 병목이 줄어든다. 케이크를 준비한다면 냉장 보관 공간과 스파클러 사용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자. 스프링클러 감지기 바로 아래에서 스파클러를 켜면 경보가 울릴 수 있다.

## 동선과 프라이버시, 엘리베이터가 당락을 가르기도 한다

회사 모임은 대체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카운터가 보이고 복도 폭이 좁은 구조에서는 타인과의 마주침이 잦다. 반대로 같은 층에 소수 룸만 배치한 매장은 내부 동선이 조용하고 캔슬 노이즈가 적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 남녀 화장실 위치와 분리 여부, 복도 CCTV 라인도 체크하자.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회의 도중 간식을 받으러 나와야 할 때 안심이 된다.

엘리베이터량은 야간에 체감이 크게 다르다. 1대만 운용하는 건물에서는 20인 단체가 2회전 이상 해야 한다. 회의 시작 직전에 도착해 탑승 [가음동 가라오케](#) 대기 시간이 쌓이면 시작이 늦어지고,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린다. 주차장에서 룸까지의 총 이동 시간을 평시에 미리 걸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동네별 분위기와 선택의 기준

창원 가라오케 문화를 동네별로 보면 목적과 예산, 동선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아래 비교는 현장 체감과 최근 문의 패턴을 반영한 요약이다.

- 가음동 가라오케: 회의 겸용 파티룸 선택지가 꾸준히 늘어난 지역. 주차와 정숙도 면에서 유리하고, 10에서 20인 소규모 기업 모임에 적합.
- 상남동 가라오케: 선택지가 가장 넓고, 최신 장비 비중이 높다. 다만 성수기에는 가격 변동폭이 크고 대기가 길다.
- 용호동 가라오케: 주거지 인접 상권으로 조용하고 단정한 매장이 많다. 가족, 동호회 모임, 발표 위주 모임과 잘 맞는다.

- 중앙동 가라오케: 직장인 밀집 구역과 가깝고 퇴근 동선이 좋다. 빠른 회전과 타임 테이블에 강점이 있으나 프라이버시 확보는 매장별 편차가 크다.
- 명곡동 가라오케: 규모는 작지만 비용 효율이 좋아, 예산을 아껴야 하는 학생 모임이나 동아리 발표에 유리하다.

가음동을 베이스로 하되, 상남동의 장비 우위가 필요하다면 이동, 용호동의 정숙함을 원하면 시간대를 달리 잡는 식으로 조합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 사례로 보는 운영 시나리오

어떤 일정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첫 사례는 12인 팀 브리핑과 노래를 묶은 2시간 30분 코스다. 18시에 모여 18시 10분까지 음료 세팅, 18시 40분까지 브리핑과 질의, 10분 환기, 19시부터 20시까지 자유 곡. 이때 룸은 1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중형, 테이블은 ㄷ자 배치로 중앙 발표 동선을 확보했다. 노래 전환의 첫 곡은 모두 아는 대중가요로 정하고, 두 번째 곡부터 개인 선곡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비용은 룸비 12만에서 16만 원, 음료 1인당 7천에서 1만 원 수준.

두 번째는 발표 중심의 스터디 모임과 생일 축하를 겸한 케이스다. 10인 규모, 19시 시작, 발표 자료는 3개, 각 12분씩 시간 박자를 명확히 잡았다. 발표 사이사이에 3분 인터벌로 Q&A를 두고, 마지막 발표가 끝나는 19시 45분에 케이크가 입장한다. 스파클러는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촛불과 무향 성냥을 준비해 냄새 잔류를 줄였다. 파티 파트가 시작되면 조명을 30 percent만 낮추고 BGM을 15 정도로 뒤편 대화가 이어지게 했다. 케이크 커팅 후에는 감미로운 곡을 한두 곡만 부르고, 뒷정리와 단체 사진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총비용은 룸비 9만에서 12만 원, 케이크 반입 무료 혹은 1만 원.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미팅이다. 현장 8인, 온라인 3인 접속. 노트북 HDMI로 화면을 띄우고, 음향은 룸 스피커에 출력하되 온라인 참여자의 말소리는 노트북 자체 스피커로만 들리도록 라우팅을 나눴다. 이렇게 하면 현장 마이크와 온라인 오디오가 섞여 울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노트북 앞에 콘덴서 마이크를 세우면 원격 쪽에는 방음이 덜 된 소리가 과하게 들어가므로, 다이내믹 마이크를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줬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안정성을 확인한 뒤에도 휴대폰 테더링을 백업으로 켜다. 회의가 끝나면 온라인 참여자와 빠르게 인사를 마치고, 로컬 파트는 회식으로 넘어갔다. 기술적 마찰이 한 번도 없었던 덕에 피로감이 적었다.

## 소음, 안전, 교통, 끝까지 챙겨야 일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가라오케는 본질적으로 소리를 내는 공간이다. 회의 파트에서는 문들의 패킹 상태가 중요하다. 틈이 벌어진 문은 복도 소음이 그대로 들어온다. 흡연실 출입문과의 거리를 고려해 룸을 배정받으면 담배 냄새가 내부로 유입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화재 안전은 비상구 위치와 유도등 밝기, 소화기 접근성을 간단히 확인하는 수준이면 충분하지만, 케이크 촛불과 스파클러는 화재감지 센서 위치를 확인한 뒤 켜야 한다.

귀가 교통은 안전과 직결된다. 대리운전 호출이 몰리는 22시 이후에는 배차 대기 시간이 10에서 20분 추가될 수 있다. 차량을 가져왔다면 주차장 운영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자. 일부 건물은 자정 이후 출차가 제한되거나, 야간 자동문이 잠겨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찍 도착한 참석자가 외부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호스트가 10분 먼저 입실해 자리와 음료를 세팅하고 단체 채팅방에 룸 번호와 길찾기 사진을 올려두면 안전과 시간 모두 절약된다.

## 정산과 서류, 비즈니스 모임일수록 깔끔해야 한다

회사비로 정산하려면 서류가 깔끔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품목 구분을 상세히 적어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자. 룸비와 식음료가 함께 찍히는 영수증은 제출할 때 설명이 필요해 번거롭다. 매장에 따라 품목을 분리 기재해 주거나, 룸비를 서비스로 표시하고 식음료로 몰아 찍어주는 곳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사내 규정에 맞으면 문제 없다. 단, 팁이나 서비스 비용은 현장에서 추가로 지출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한다.

환불 규정도 중요하다. 당일 취소 시 100 percent 차감, 하루 전 취소 시 50 percent,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같은 구조가 일반적이다. 폭우 경보나 대중교통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예약금은 전체 예상 금액의 10에서 30 percent 수준이 많다. 카드 선결제를 요구하는 매장도 있으니 임직원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면 현장 논쟁을 피할 수 있다.

## 창원 전역의 맥락 속 가음동의 쓰임새

창원 가라오케 문화는 상권마다 결이 뚜렷하다. 상남동 가라오케는 선택지와 장비 폭이 넓어 화려한 무대를 원할 때 유리하다. 용호동 가라오케는 정숙하고 단정해 프레젠테이션 비중이 큰 모임이 안정적으로 열리기 좋다. 중앙동 가라오케는 퇴근길 접근성과 회전율로 일정이 뽀뽀한 날 잘 맞고, 명곡동 가라오케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아 학회 스터디나 동아리 일정과 어울린다. 그 가운데 가음동 가라오케는 가격과 조용함, 주차 편의의 균형이 특징이다. 회의실 겸용 파티룸을 고집한다면, 장비가 과한 곳보다는 조명, 음향, 테이블 가변성 같은 기본기가 탄탄한 매장을 우선 보자. 필요하다면 추가 장비를 소규모로 반입하는 편이 결과가 더 좋았다.

## 마지막으로, 선택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

회의와 파티가 같은 공간에서 이어질 때 가장 흔한 실패는 리듬이 깨지는 것이다. 화면 출력이 안 되거나 마이크가 울리고, 음식이 너무 일찍 들어와 집중이 흐트러지고, 정산이 길어져 귀가가 늦어지는 식이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 사전 점검으로 해결된다. 일정표와 체크리스트를 팀 단톡방에 공유하고, 발표자 노트북의 포트 규격과 어댑터, 발표 자료의 글자 크기, 온라인 접속 인원의 오디오 라우팅까지 확인해두면 현장에서 호흡이 매끄럽다. 룸을 고를 때는 사진보다 구조와 동선, 냄새와 소리의 결을 직접 느껴보면 실수가 줄어든다.

가음동은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지다. 장비 스펙이 상남동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회의에 필요한 기본기와 조용한 분위기, 합리적 비용이 맞물린다. 좋은 룸 하나가 일정 전체의 컨디션을 바꾼다.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가음동을 베이스로 창원 전역의 상권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보자. 회의는 집중력 있게, 파티는 가볍게 즐기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